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도, 해상풍력 인증메카로 성큼

에너지공단 등과 풍력 핵심소재·부품 전주기적 종합시험기반 구축 협약... 총사업비 254억 투입

전북도가 풍력 블레이드 '소재·부품 완성품'을 아우르는 전주기적 종합 시험기반 구축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도는 17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풍력 핵심소재·부품 종합시험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권인혁 부안군수를 비롯해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이정환 한국재료연구원 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부안 신재생에너지 단지 풍력시험동 인근에 풍력 핵심소재·부품 종합시험기반을 구축함에 있어 기관별 협력 범위 및 역할 등을 확정했다.

전북도와 부안군은 기반구축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각종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지원사업 수행관리를, 한국재료연구원은 건축 및 설비·장비 등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 수행에 나서게 된다.

'풍력 핵심소재·부품 종합시험기반' 구축 사업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254억(국비 198억, 지방비 56억)을 투입해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내에 1,700㎡ 규모의 시험동 건축 및 5개 시험설비 구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재 부안 풍력시험동의 블레이드 인증시험은 완성품에 대해서만 이뤄



전북도는 17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풍력 핵심소재·부품 종합시험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의지를 다졌다.

지고 있으나, 이번 소재·부품 단위 개발·인증 시험을 추가하게 되면 '소재·부품 완성품'을 아우르는 전주기적 종합시험기반이 완성될 전망이다.

풍력 블레이드 각 개발 단계마다 검증시험을 거침으로써, 개발 제품의 신뢰성 향상 및 극심한 해상 환경에서의 블레이드 파손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풍력 블레이드 및 기타 복합재료 소재·부품 완제품 공급체인 집적화로 전북도 경제발전 및 24GW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재료연구원은 부안 풍력시험센터 운영기관으로 그간 축적된 소재·부품 전문가 역량에 기반해 전북지역에 소재한 80여개의 소재·부품 기업에 최고 수준의 국제공인시험·인증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향후 글로벌 해상풍력의 판도를 좌우할 초대형 블레이드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해 전북을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시키

고, 성공적인 24GW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사업 추진과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 도약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사업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돼 본격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했고, 한국형 해상풍력 사업의 롤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타 지자체의 관심을 받고 있다. /유호상 기자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국비 부담률 80% 인상"을

시도지사협, 국민 생활안정 위해 '한 뭉'

현재 국비·지방비 50% 비율로 시행 중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급증상황에서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지원비의 신속한 지원과 지속추진을 위해 뜻을 모았다.

시도지사협의회는 17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에 대한 국비 80% 부담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서에서 임원·격리자에 대한 수입 감소 보전 차원의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을 기존 국비 부담률 50%에서 80%로 인상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하루 최고 신규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임원·격리하는 환자의 급증 추세로 인해 생활지원비 예산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국비와 지방비를 동등하게 50%씩 부담하는 것은 재정기반이 매우 취약한 지방정부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임원과 격리에 따른 수

입 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해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을 각각 국비와 지방비 50% 비율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비 50% 부담은 재정자립도가 각각 47%, 28%를 밑돌고 있는 광역·기초자치단체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어, 이대로는 향후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에 전국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의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기초생활보장사업이나 긴급복지사업과 같은 수준인 국비 80% 부담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에 대한 국비 80% 부담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하게 된 것이다.

송하진 회장은 "작년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은 국민 생활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고 전제하며,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전주 드론산업 '날개 달다'

시, 드론 실증도시 구축·규제샌드박스 공모 등 선정  
2년간 국비 33억 지원... 스마트안전도시 구현 등 추진

동안 AI드론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을 통한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을 목표로 드론 실증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국비 28억원을 확보한 시는 임무용 AI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비행실경을 통해 하천과 공원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하거나 시설물 보수 및 관리 주기 설정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시는 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AI/

항공데이터 공유플랫폼을 구축 드론 기업의 비용과 인력 절감을 도모해 대한민국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우수 드론기술 상용화와 실증 지원을 위한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도 따내 드론축구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2016년 세계 최초로 개발



전주시는 올해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드론 규제샌드박스' 공모에 모두 선정돼 2년간 국비 33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협약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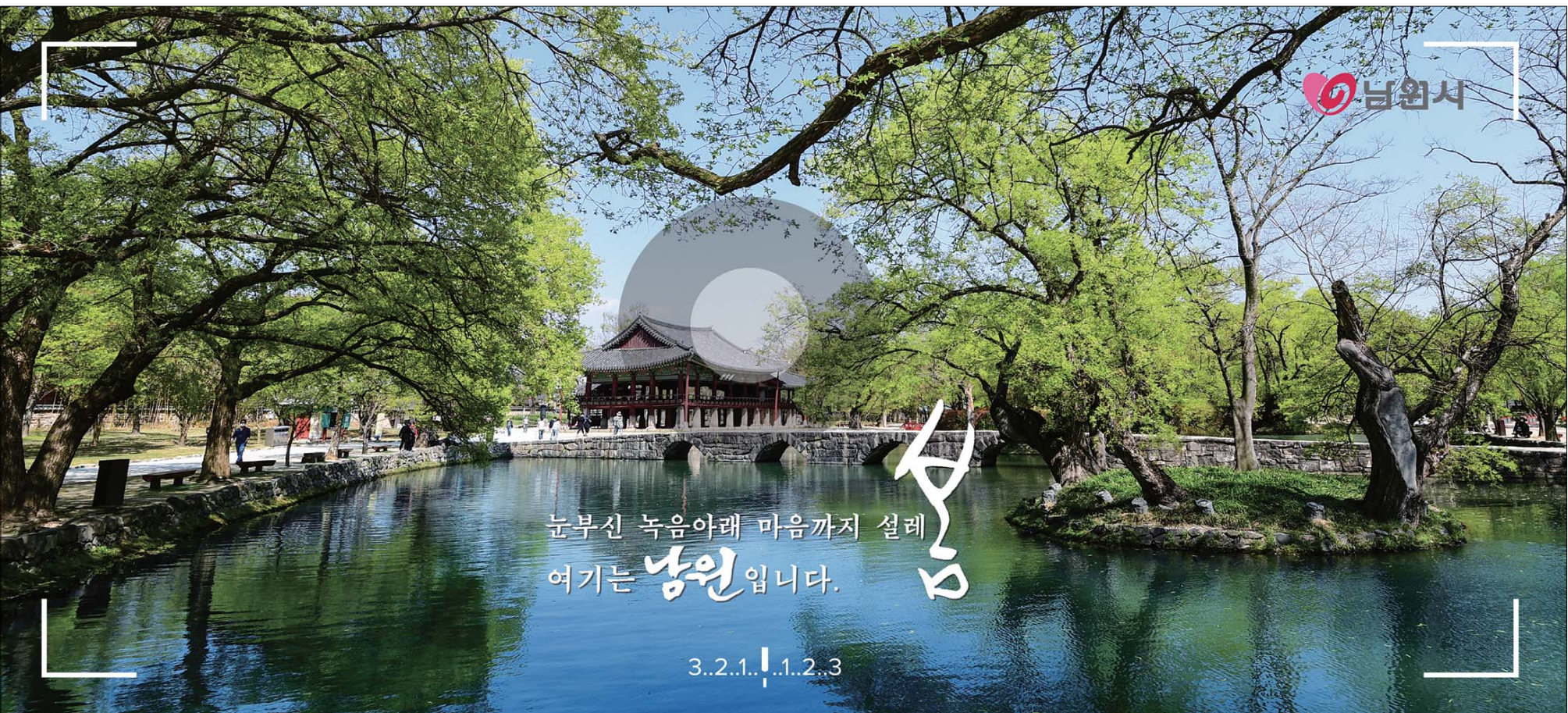
한 드론축구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2년간 국비 7억 원을 지원받아 경기 관리·운영 시스템의 고도화와 핵심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게 된다.

시는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최첨단 드론기술로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드론축구의 세계적인 레저스포츠 도약 등 전주형 드론

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핵력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드론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산업으로, 전주는 그동안 드론축구 개발과 드론축구 부품 해외수출 등 드론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도전을 이어왔다"면서 "앞으로도 드론축구와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과 인재를 키우는 일에 집중하고, 전주가 강점을 지닌 탑승·수소·ICT사업과 연계해 드론산업을 미래핵력으로 키워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토·일요일신문 쉽니다



남원시

눈부신 녹음아래 마음까지 설레  
여기는 남원입니다.

3.2.1. | 1.2.3